

2026 아름다운주님의교회주일공동체예배

여러분의 아즈카라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3~6 어느 날 오후 세 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네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옴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오늘은 '여러분의 아즈카라는 무엇입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번역된 말씀 속에 숨겨진 보물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이라는 놀라운 말씀의 현장 앞에서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거대한 물줄기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거대한 사건 속에서 아주 작아 보이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4절의 한 단어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 속에 숨겨진 놀라운 영적 비밀을 풀기 위해 잠시 성경의 역사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는 구약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BC 3세기경에 성경 번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세계는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전쟁 이후 헬라 문화권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당시 세계 공용어는 헬리어(그리스어)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재외 교포들이죠. 이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졌는데,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히브리어를 모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해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긴 거죠.

전승에 따르면 이집트의 왕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총 70명(정확히는 72명)의 랍비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 구약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70인역 성경(Septuagint, LXX)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신약성경의 저자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도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 70인역 성경의 단어들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즉,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의 단어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그 뿌리가 되는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이었는지를 추적해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천사는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4 "네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여기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헬라어로 '므네모쉬논'입니다. 이 단어는 70인역 성경에서 히브리어 '아즈카라(Azkarah)'를 번역할 때 쓰인 단어죠.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아즈카라'입니다.

※아즈카라, 하나님을 일깨우는 한 움큼

그렇다면 '아즈카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생소한 단어지만, 이 단어의 의미를 알면 예배와 헌금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단어는 레위기 제사법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Grain Offering)'라고 합니다.

제사드리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사자가 정성껏 빻은 고운 밀가루와 기름, 그리고 향기로운 유향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옵니다. 제사장은 그 많은 가루를 다 제단에 쏟아부을까요? 아닙니다. 제사장은 그중에서 딱 '한 움큼'을 손에 꼭 쥅니다. 그리고 그 한 움큼만을 제단 불 위에 던져 태웁니다. 바로 이때, 불에 타서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이 '한 움큼의 제물', 이것을 히브리어로 '아즈카라'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념물(Memorial Portion)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제사장은 곡식 전체를 다 태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극히 적은 부분인 '한 움큼'만 태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타오르는 한 움큼의 향기를 맡으시고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네가 나에게 전부를 바쳤다. 내가 너의 제사를 온전히 다 받았다."

'아즈카라'는 전체를 대표하여 드리는 부분이자, 하나님으로 하여금 제사드리는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룩한 신호탄입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라고 하나님을 흔들며 깨우는 사랑의 외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고넬료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고넬료야, 네가 매일 드린 그 기도, 네가 가난한 자에게 남몰래 내민 그 따뜻한 손길... 그것이 단순히 땅에 떨어져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 제단 위에서 활활 타오르는 '아즈카라'가 되었다. 그 향기가 하늘 보좌에 닿았고,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즈카라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향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시지만, 특별히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당신을 감동하게 만드는 '아즈카라'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일깨울 나만의 아즈카라가 필요합니다.

※십일조는 돈이 아니라 '아즈카라'입니다

이 아즈카라의 원리를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잘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십일조'와 '헌금'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이 십일조를 마치 세금이나 회비처럼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의무적으로 내야지", "십일조 안 내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낸다", 혹은 "이만큼 내면 하나님이 더 많이 불러주시겠지"라는 투자 심리로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십일조의 본질이 아닙니다. 십일조는 결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일조는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아즈카라'입니다. 구약 시대에 곡식 한 포대에서 '한 움큼(아즈카라)'을 떼어 제단에 태우면, 남은 곡식 전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10의 1뿐만 아니라, 나머지 10의 9도, 아니 내 생명과 건강, 내 자녀, 내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제가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한 움큼'을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의 생일, 혹은 결혼기념일을 왜 챙깁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매일 같이 밥 먹고, 매일 한 이불 덮고 잡니다. 사랑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1년에 한번, '기념일'을 정해서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준비합니까? 그날의 그 의식(Ceremony)이 "나는 당신을 여전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사랑의 아즈카라'이기 때문입니다.

기념일 챙기는 것을 보며 "돈 아깝다. 사랑하면 됐지 무슨 형식이 필요하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무력합니다. 마찬가지로, 헌금은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확인하는 기념일과 같습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려 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분도 주님

이시고, 제 생명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저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 절절한 고백을 담아 드리는 예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즈카라입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그 중심, 그 '한 움큼'의 정성을 보십니다.

※태도가 곧 아즈카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아즈카라 정신을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과 우리 자녀들이 이 '아즈카라의 영성'으로 무장하길 원합니다. 삶의 작은 태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루의 '첫 시간'을 아즈카라로 드리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첫 마음, 첫 표정,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눈을 뜨자마자 "아, 피곤해. 또 출근해야 해? 죽겠네"라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그것은 하루의 시작부터 불평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썩은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의식적으로라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셨군요.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그 짧은 1분의 고백, 침대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의 기도가 하루 24시간 전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아즈카라가 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부모님께, 하나님께 밝게 인사하는 그 태도가 평생의 축복을 부르는 씨앗입니다.

둘째, '사랑의 표현'을 아즈카라로 심으십시오. 가족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함 덕분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쑥스러우십니까?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 전체를 대변하는 아즈카라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향기가 없습니다. 닫힌 향수병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뚜껑을 열어야 향기가 퍼집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눈빛 하나, 꼭 잡아주는 손길 하나가 관계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향기가 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쑥스럽더라도 꼭 사랑한다고 말해보십시오. 그 순간 가정에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셋째, '주일 성수'는 시간의 아즈카라입니다. 일주일 168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중에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시간은 지극히 짧은 '한 움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세상의 쾌락이나 쉼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주일 전체를 받으십니다. 주일 성수는 율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스케줄은 주님이 관리하십니다."라는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시간의 아즈카라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머지 6일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을 부여 주십니다.

넷째, '소유'에 대한 아즈카라를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은 무서운 말

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다 주님 거면 나는 빈털터리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십시오.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자녀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작은 물질을 아즈카라로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의 흐름(Flow)'입니다.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의 물질이 욕심의 댐에 갇혀 있지 않고, 아즈카라가 되어 하나님께로, 이웃에게로 흘러갈 때 하나님은 더 크고 깨끗한 물질로 우리 삶을 채워줍니다. 흘러보낼 때 더 크게 채워집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사도행전 10:4 "네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여기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고 계시다가 "아참, 개가 있었지!" 하고 깜빡했다가 생각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자카르)'는 말은 곧 '행동하신다',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8:1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창세기 30:22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 주셨다.

출애굽기 2:24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역사가 시작됩니다.

고별료가 드린 기도와 구제라는 '아즈카라'가 하늘로 올라가니,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고 베드로를 보내어 이방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여러분의 '향기',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21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움켜쥐고 전전긍긍하며 벌벌 떠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유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아즈카라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정성 어린 예배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드리는 십일조가, 여러분의 이웃을 향한 따뜻한 섬김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로운 기념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의 중심을 보았다.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니,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리

라."

이 음성을 듣는 성도,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는 인생, 그리하여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공동체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